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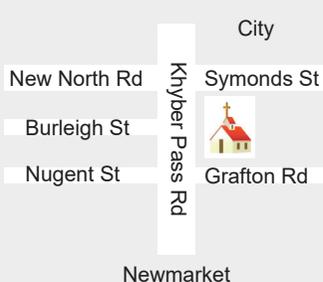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오늘은 성찬예식이 있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준비를 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합니다.
- 3월 정기 당회가 오는 수요일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로마서 10장부터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시119:50).
- 오는 4월 8일(월)-12일(금)까지 한 주간 새벽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오전 5시 30분). 주제:거기, 너 있었는가(마태복음27:55). 기도담당자 월:이옥화 화:민선희 수:김은우 목:한누리 금:김선화
- 세례자 예비 교육이 2부예배 후 3시 10분부터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세례식:부활주일).
- 2남선교회에서 중고장터를 운영합니다. 집에 필요없으신 물건을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필요한 분이 적당한 금액을 내고 사가시게 됩니다. 모아진 금액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물건은 주방 아래층 방에 상시 전시할 예정입니다(물건 기부 및 구입문의: 장연식, 정현열집사). 4월 첫주부터 정식오픈
- 여선교회 연합 기도회가 오는 6일(토) 오후 4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 서머타임(Day light saving)이 오는 4월 7일 주일부터 해제 됩니다. 6일(토) 취침 시 한 시간 앞당겨 놓기 바랍니다(예 9시-10시).
-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주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이성훈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 안의 거짓 신들을
없애고 싶다면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라!

〈거짓신들의 전쟁〉 카일 아이들먼

2019년 3월 31일 주일

2019 신앙생활 포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찬양	주일찬양단
예배로 부름	베드로전서 4:13-14 인도자
◎ 찬송	27장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54장 다같이
대표기도	정관영 장로
성경봉독	마가복음4:35-41 인도자
찬양대 찬양	베드로의 기도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태한 목사
찬송	400장 다같이
성찬예식	229장 집례자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445장 다같이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인도: 이태한목사

기도	이애란권사	찬송	426장
성경봉독	마태복음12:34-37	중보기도	다같이
설교	말의 진실/이태한목사	주기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2. 신앙이 중심이 되어 세상 풍조의 유혹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육신의 질병, 삶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으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여러 성도들의 성경통독 후기입니다.

서양 책들을 읽다 보면 소설도 그렇고 많은 책들이 특하면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그 저자가 신실해서라기보다 기독교가 서양문화에 끼친 영향이 압도적이어서, 워낙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일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뭔가 유식해 지려고 한다면 나도 성경책을 한 번 읽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소설을 읽듯 한 일주일이면 되겠지 하는 만만한 생각으로 실제로 여러 번 시도를 했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번갈아 가며 시작해 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번번이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인 누가 누구를 낳고 부분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몇 번을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5장 산상수훈까지 진출(?)했는데 거기서 그만 내 길이 크게 바뀌고 말았다.

이제는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고 누가 어떤 책에서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 해도 아, 그 말씀하고 떠올릴 정도는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법 유식해 진 것이고 교양으로 생각한 젊은 날의 목표는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장 족보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도 그 스토리를 떠올리며 읽을 수 있고 기억이 잘 안 난다 해도 낯선 이름들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말씀에 목이 마르다. 여전히 모르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사실들 투성이 이고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많이 깨알 같이 메모도 하지만 지나고 다시 보면 또 가우뚱 해진다. 하지만 말씀이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는다. 더욱 말씀과 친근해 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습관적이거나 그저 익숙해 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마태복음 5장을 처음 읽었을 때 들려주신 그 확실한 음성을 또 들려 주실 줄을 믿으며 조심스럽게 첫발을 딛는다.

In sickness... poverty... abandonment... betrayal... mistreatment... nothing ever "just happens." Behind the scenes God's orchestrating everything; Romans 8:28 tells us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according to his purpose," including the things you're going through right now!

병, 가난, 버림, 배반, 학대 등 어떠한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28 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Nothing "just Happens!"(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Every purpose of the Lord shall be performed. - Jeremiah 51:29

Even in the midst of pain, separation, and disappointment, you're still in God's protective custody. With Him nothing just happens. "Coincidence" is what takes place when He decides to remain anonymous!

당신이 비록 고통이나 이별, 그리고 절망 속에 있다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로 결정하셨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Look at Jonah; God sent him to Nineveh, but instead he boarded a ship headed in the opposite direction. Now it "just happened" that a storm blew up, he was dumped overboard, a great fish swallowed him, threw him up three days later, and the first words he heard when he hit the beach were, "Go to Nineveh." You can go the easy way or the hard way; the choice is yours! One thing is certain: every purpose of God shall be performed!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 때 "우연히도" 태풍이 불어 요나는 바다로 떨어지게 되고 커다란 물고기는 그를 삼켰다가 3일 후에 뱉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도달했을 때 그가 첫번째로 들은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였습니다. 당신은 쉬운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A little girl was running to get to Sunday school on time, praying, "Lord don't let me be late." Suddenly she tripped, fell and got her dress dirty. Getting back up she brushed herself off and said, "Lord, I know I don't want to be late - but you don't have to shove!"

한 작은 여자아이가 "하나님 제가 늦지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며 주일학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발을 헛디뎠더니 옷까지 더럽혀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일어나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늦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치만 뒤에서 떠미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요!"

Sometimes God gives us a shove to: (a) get us out of our rut; (b) get us over our fear. That's because He's the CEO. He's in charge. He'll "take you, break you and make you," in order to carry out His will. Satan has never once been able to abort God's plan.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밀으십니다: (a) 타성에 젖어 있는 것에서 빠져 나오게 하시려고. (b)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 경영자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을 깨드리며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탄은 결코 한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멈출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왼쪽면에서연결)